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HADOW WEAVER
가제 : 그림자와 노는 아이
저자 : MarcyKate Connolly
출판사: Sourcebooks
발행일: 2018년 겨울
분량 : -
장르 : YA 소설



- * 뉴잉글랜드 도서상 결선 진출작 「Monstrous」, 주니어 라이브러리 길드 추천도서 「Ravenous」를 쓴 작가가 완성한 또 한 편의 흥미진진한 판타지 소설
- * 그림자와 말을 나눌 수 있는 열두 살 소녀,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시작된 모험

에멀라인이 아직 아기침대에 누워만 지내던 때, 그림자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그림자가 처음 들려준 이야기는 에멀라인이 태어난 까만 밤, 달이 구름에 가려져 별빛이 더 빛나던 모습이 었다. 보통 다른 아기들은 겁이 나서 소리를 뻑뻑 질러대며 울었겠지만 에멀라인은 그러지 않았다. 방안 구석에서 바라보던 그림자에게 에멀라인은 작은 팔을 흔들며 미소 지었고 그림자도 마주보며 웃었다. 그때부터 에멀라인은 열두 살이 될 때까지 그림자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냈다. 그림자는 에멀라인이 어딜 가나 함께하고, 무슨 고민이든 귀를 기울였다. 그림자가 건네는 말이 에멀라인의 귀에는 다 들렸다. 심지어 다른 그림자들을 장난감 상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똑딱 만드는 솜씨까지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를 그저 벽이나 바닥에 드리워진 것으로만 여기지만, 에멀라인에게는 형제이자 가장 재미 있는 놀이 친구였다.

그림자 외에 유일하게 같이 노는 켄드라를 기다리던 그 날도, 에멀라인은 저택 한 쪽에서 걸어 온 그림자로 찻주전자를 만들고 그 옆에 작은 찻잔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았다. 작은 쟁반도 그림자로 만들었지만 비스킷은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얼른 켄드라가 와서 같이 차를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다. 켄드라는 에멀라인이 꼬맹이일 때부터 같이 뛰어 놀던 한 살 많은 언니인데, 얼마 전부터 하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엄마는 이제 켄드라와는 동무로 지낼 수 없다며 타일렀지만, 에멀라인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날 켄드라는 끝내 약속한 시간이 30분을 훌쩍 넘기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바쁜 일이 있을 거라고 너그럽게 이해하려던 에멀라인은 집안일에 지쳤을 켄드라를 위해 정원에서 나비가 내려 앉은 예쁜 나무 그림자를 집어왔다. 하지만 깜짝 선물로 놀라게 해주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켄

드라가 다른 하녀와 깔깔대며 나누는 이야기소리가 에멀라인의 귀에 들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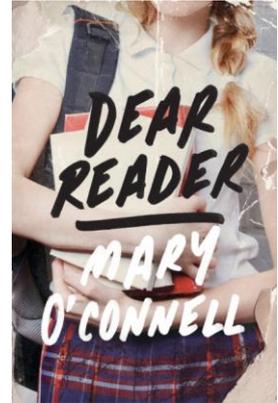
켄드라는 에멀라인이 다 듣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하녀 친구에게 에멀라인을 한껏 비웃었다. 그림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정신 나간 아이라는 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림자가 대답한다고 전해준다는 둥 그동안 함께 재미 있게 놀았다고 여겼던 시간들을 켄드라는 무참히 짓밟았다. 에멀라인은 눈물을 흘렸고 그림자도 속상해했다. 오직 에멀라인만이 제대로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저런 오해를 할 때마다 둘 다 억울하고 답답했다. 에멀라인은 두 번 다시 그림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에멀라인의 비밀은 의도치 않게 드러나고 말았다.

친구인 척 가증스럽게 자신을 대한 켄드라를 그림자와 함께 골탕먹인 후, 에멀라인은 엄마에게 그림자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놀리면 안 된다고 훈이 났다. 그러면서 며칠 후, 귀족인 지니아가 방문할 예정이니 ‘그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다. 마침내 지니아가 저택에 찾아온 날, 에멀라인은 최대한 조심하려 했지만 실수로 비밀이 탄로나고 만다.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엄마아빠는 너무 놀라 에멀라인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판단을 내리고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멀리 보내기로 결정한다. 에멀라인은 너무 억울했지만 그림자를 자신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에멀라인의 그림자는 걱정 말라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여느 때처럼 위로했지만 쫓겨가는 에멀라인에게 더 큰 문제가 찾아왔다. 여태 가장 좋은 친구였던 그림자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에멀라인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이 이상한 아이라는 오해도 풀고 그림자의 위태로운 소망도 해결해야 한다.

<저자 소개>

마시케이트 코놀리(MarcyKate Connolly)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며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2015년에 발표한 아동 판타지 소설 『Monstrous』는 같은 해 ‘뉴잉글랜드 도서 상(New England Book Award)’ 결선에 올랐으며, 올해 2월에 출간된 『Ravenous』는 ‘주니어 라이브러리 길드(JUNIOR LIBRARY GUILD SELECTION)’가 선정한 봄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

제목 : DEAR READER
가제 : 독자 여러분
저자 : Mary O'Connell
출판사: Flatiron Books
발행일: 2017년 5월 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길모어 걸스’과 마술적 사실주의의 만남, 맨해튼에서 재현된 현대판 ‘폭풍의 언덕’
- * “YA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확장시킨 책.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담긴 절묘하고 아름다운 글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샤넬 본파이어
- * “지독하게 아름다운 이야기. 등장인물들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다.” - 『The Half Life of Molly Pierce』의 작가 카트리나 레노

스위니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3월 첫날, 1교시 수업에 드러났다. 전날 영어 수업에서도 전혀 이상한 낌새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 연락도 없이 수업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열일곱, 수줍음 많고 동급생들처럼 사람들에게 그리 다정하지만은 않은 여학생인 플래너리는 그나마 스위니 선생님의 수업은 집중해서 참여해왔다. 학생들의 숙제를 꼼꼼하게 읽고 길게 의견을 달아주는 선생님의 열정을 다른 아이들은 잔소리가 많네, 본인이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특별한 교사로 착각하나 보네 등등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플래너리에게는 지난 학기 영어 선생님이 채 한 줄도 안 되는 코멘트로 끝냈던 것과 사뭇 비교가 되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스위니 선생님이 지적한 사실 중에 틀린 말은 찾기 힘들었다. “넌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적힌 숙제는 옷장 서랍에 고이 간직해놓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고 또 읽을 정도였다. 오전 8시. 수업 시작 종이 울려도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다. 5분쯤 지났을 때만 해도 플래너리는 선생님이 또 늦잠을 잤나 보다고 생각했다. 창가에 앉아 내려다보면, 가끔 8시 직후 젖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학교 현관을 향해 달려오는 스위니 선생님이 보이곤 했으니까. 하지만 그 날은 8시 30분이 지나도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교실에 나타난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되려 선생님 못 봤냐고 물었다. 의아해진 플래너리는 이상한 직감에 쉬는 시간이 되자 몰래 교무실로 들어섰다. 선생님 책상에서 단서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가 그곳에서 플래너리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한다. 평소 선생님이 들고 다니던 작은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열린 가방을 집어 들고, 플래너리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열쇠, 화장품, 휴대전화와 함께 뜻밖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이 적힌 작은 책. 겉으로 보면 평범한 책처럼 보이지만,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알 수 있었다. 그건 스위니 선생님의 일기장이었다.

스위니 선생님의 일기를 본 플래너리는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게다가 일기는 뭔가 이상했다. 선생님이 뉴욕 시를 헤매고 다닌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았다! 영어교사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얼마 후 경찰이 학교를 찾아오고, 플래너리는 선생님의 소지품을 모두 경찰에게 넘겨주면서 일기장은 감추었다. 결국 플래너리는 전혀 평소답지 않은 일을 시작한다. 학교까지 빼먹고 일기장 하나만 든 채 무작정 아침 첫 차에 올라 맨해튼으로 향한 것이다. 게다가 도착 직후, 어딘가 묘한 구석이 있는 남자아이를 우연히 만난다. 대학 입학 앞두고 1년간 쉬고 있다는 그는 이름이 히스인데다, 아인슈타인이나 안네 프랑크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이상한 아이였다. 게다가 보면 볼수록 플래너리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히스클리프와 너무 닮은 부분이 많았다. “설마 이 아이가 소설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건 아닐까?” 정신 나간 생각인 줄 알면서도 플래너리의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고, 그는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플래너리를 돕겠다고 나선다. 대체 스위니 선생님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히스는 정말 그 유명한 소설 속 주인공 히스클리프일까?

작가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작 『폭풍의 언덕』을 향한 개인적인 애정을 듬뿍 담아, 기발한 상상력과 위트를 가미하여 완성한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메리 오코넬(Mary O'Connell)은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Iowa Writer's Workshop)을 졸업하고 캔자스 주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단편 모음집 『Living with Saints』와 YA 소설 『Sharp Time』을 발표했다. 제임스 미체너 장학금(James Michener Fellowship)과 시카고 트리뷴 넬슨 알그렌 어워드(Chicago Tribune Nelson Algren Award)를 수상했다.